월/요/광/장

구길선

당선무효 기준 적정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다. 일반형사범의 공소시효기간이 최소 1년인 것에 비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짧은 것은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당사자의 고의적인 불출석 등으로 선거범죄의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기간 동안 임기를 채우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 이외에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일정 기간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 적정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을 살펴본다.

첫째, 당선인 자신이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한해 벌금 15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됐으나 1994년 통합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100만원으로 낮추고 그 대상도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이 규정이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한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하한이 적정한가에는 적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도 이 같은 당선무효기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당한 내용의 선거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까지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궁여지책으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벌금 90만원의 형은 일반 형사범의 경우 좀처럼 선고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다. 게다가 일반 형사범의 경우 경제성장에 맞춰 요즈음은 사소한 범죄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예컨대 불법기부행위를 한 당선자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반면, 동네 마트에서 빵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벌금형의 하한이 높은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원에서 최대한 감경을 하더라도(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한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어 당선무효가 된다. 이러한 입법의 연혁이나 사례들을 살펴보면 벌금 100만원의 하한을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 통장·이장·반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상근임직원 등에서 즉시 퇴직한다는 규정이다. 즉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군청 직원이나 마을 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즉시 퇴직하고, 5년간 그 직에 임용될 수 없다.

선거직 공무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직업공무원 등에게 퇴직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가혹해 보인다. 공무원이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야 퇴직한다는 법조항과 비교하면 그렇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재선, 3선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한 예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전남에 있는 어떤 군의 마을 이장단이 현직 군수를 위해 지지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들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그 중 상당수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상당수 이장들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었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공직자들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퇴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위직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핵심을 찌른다. "성희롱 교육이나 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 교육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 선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명제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정호

국민참여재판에서 만난 피고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3년째를 맞는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던 사건 중 두 사건은 모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접한 탓인지 사건을 맡기 전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라는 선입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먼저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방법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시민 배심원들을 선정한 후에 공판절차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위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선정절차의 중요성으로 인해 변호인으로서는 양육의 어려움과 우울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후보자들을 적절히 배제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아직 미혼인 젊은 남성이나 아이를 길러 본 적이 없는 고령의 남성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인식의 정도가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심원이 선정된 이후의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무게와 이 사건 당시의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한 변론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이 아닌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을 설득하여야 하는 재판의 특성상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변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변호인의 최후변론은 배심원들과 함께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간단한 메모지 한 장만을 가지고 배심원석 앞으로 나아가 피고인에 대해 변론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하루 종일 장시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또다시 장문의 원고를 낭독하는 것보다는 배심원들과 대화하듯이 호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두 사건 중 2008년도 사건은 배심원들이 살인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되, '심신미약 감경'하여 집행유예의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9년도 사건은 배심원들이 심신상실로 인정하고 전원 무죄의 평결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되, '심신미약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가 청구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여러 특성을 반영한 필자의 노력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었다.

아마도 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인으로서 피고인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피고인들을 '자식을 죽인 비정의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법감정과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보완·정착되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이상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창의성에 대하여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 번씩 한다. '빛을 빛의 속도로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

인류의 시간과 공간 관념에 혁명을 가져다준 상대성 이론의 출발이 된 아인슈타인의 생각처럼 누구도 생각 못했던 번뜩이는 발상을 창의성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창의성을 신이 내려준 선물, 즉 타고난 재능으로 보았다. 유명한 교육자이며 철학자인 플라톤마저도 '시인은 뮤즈가 구술해 주는 것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창의성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창의적인 사람 9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각자 영역에서 해당 지식을 섭렵해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체계를 생산해 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창의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발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우연한 발견이나 비범한 통찰도 그 발견과 통찰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탄탄한 지식이야말로 창의성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뒤에 아버지의 혹독한 조기 교육이 있었고, 김연아 선수의 연기력 이면에 상처와 굳은 살이 가득한 손발이 있었음은 우리가 이미 주지한 사실이다.

21C는 창의성의 시대다. 애플 컴퓨터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처럼 남과 다른 독창적인 발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별화된 '창의성'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사실,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능이라기보다는 계발 가능한 '세련된' 사고방식이다. 뇌 과학자 모기 겐이치로는 '창조성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임계치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정보를 모으고, 모은 정보를 편집해야 한다고 했다. 정보를 모으고 새로운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키는 정보의 편집이 창의성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아다 요나트(Ada Yonath, 2009년 노벨화 학상 수상자)는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요소로 연구에 관한 호기심을 풀어가는 긴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들었다. 즉, '창의성=호기심+시간+지원'으로 보았다. 본인의 호기심 '연구 과제'에 대한 도전 정신, 여기에 시간과 사회적 지원이라는 외적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10년 이상 정보를 모으고 스스로 호기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만약 부모나 교사의 욕심 속에 가두어 놓고 억지로 머릿속에 원치 않는 정보를 주입하고 있다면,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관심 분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일이다.

최근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자기 기획형' 인재를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등은 이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학습의 중심에 두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중심에서 상황 중심적 교수·학습 과정으로의 전환, 아이의 재능을 조기에 진단하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 등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근본적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면밀히 시스템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설

온 국민 하나로 만든 그리스전 승전보

태극전사들이 2010 남아공월드컵 그리스와의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의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한국시간) 열린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공수에 걸쳐 그리스를 압도하며 2대0이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그리스전 승리의 의미는 각별하다. 한국인 감독으로는 사상 첫 번째 본선 승리인데다 당초 목표인 '원정 16강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물론 낙관은 금물이다. 17일 경기를 가질 아르헨티나와 23일 맞붙을 나이지리아 등 나머지 두 나라는 결코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이 그리스와의 경기에서처럼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승리의 여신은 대한민국에 미소를 보낼 것이다. 남아공 현지의 일교차와 강풍, 고지대 적응 역시 쌓아온 훈련의 양과 다져온 의지로 극복하지 못할 리 없다.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라 인류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 전이 열린 12일 광주월드컵 경기장 등 거리 응원이 열린 전국 287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90여만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연호했다. 한국 대표팀 열두 번째 선수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지난 2002년 당시의 역동적이고 질서있는 우리의 응원문화는 세계를 감동시킨바 있다. 월드컵은 장외의 태극전사인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응원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확인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23명의 태극 전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후회없는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민들도 이제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경기를 즐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다. 태극 전사들의 계속되는 월드컵 승전보를 기대한다.

잇단 사건에도 여전히 허술한 학교 안전망

최근 학교 주변에서 각종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초등학교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여덟 살 어린 아이가 납치돼 성폭행 당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학교와 그 주변의 어린이 보호·안전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어 충격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서울 초등생 교내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지역 6개 초등학교 안전망을 점검한 결과 학교 입구를 지키는 경비실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한다. CCTV도 시설물 보호나 도난사고·학교폭력 예방 위주로 학교 건물이나 교사 뒤편에 배치돼 있어 납치와 같은 강력사건에는 무용지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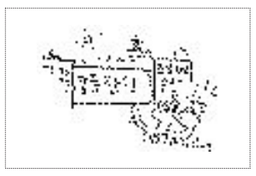
특히 '담장 허물기 사업'과 학교 개방이 이뤄지면서 초등학교의 출입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97년 학교경비 등을 위해 도입된 '학교안전요원'도 매일 오후 5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탓에 낮 시간대 경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안전망은 구멍이 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조치는 최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학교 일대가 우범지대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프랑스,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처럼 어린이 성폭행범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다. 지금이라도 당국과 지역사회는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 강화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금남로 글판



금남로는 늘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와 인파로 부산하다. 종종걸음으로 스쳐지나가는 행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 걸까. 경쟁과 속도가 최대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의 삶은 삭막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며 때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미소를 짓게 하는 정경이 있다. 금남로 5가 교보생명빌딩 외벽에 내걸린 글판이 그 것이다.

'너와 난 각자의 화분에서 살아가지만 햇빛을 함께 맞는다는 것!'

이달 들어 글판에 실린 힙합(hiphop) 뮤지션 키비(Kebee)의 '자취일기' 한 구절이다. 인간이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지만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면 언제든 소통의 공간에 나와 서로 기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시작된 교보생명 글판이 올해로 스무살이 됐다. 영암 출신으로 교보생명을 창립하고 대산문화재단과 교보문고를 만드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고 신용호 회장의 제안으로 1991년 선보였다. 이후 1년에 네 차례 계절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새 문안을 선보이고 있다. 3년 전부터는 광주와 제주 등 전국 6개 사옥에도 나란히 내걸리고 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낡은 반복으로부터'(고은)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이싸)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개, 천둥 몇개, 벼락 몇개'(장석주)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문정희)

간판 속 글귀들은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번잡한 도심의 일상에서 잃고 살았던 시심(詩心)을 일깨운다. 도전과 희망, 사랑의 메시지로 마음의 여유와 긍정의 힘을 심는다. 이는 또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하다. '사람들 모두 저마다 한 줄의 시를 쓸 때까지' 금남로 시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